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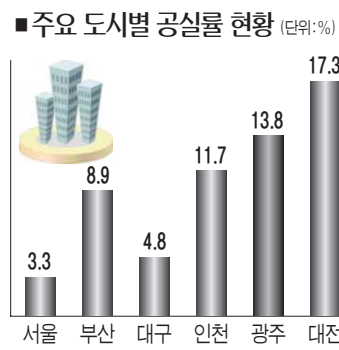
광주지역 업무용 건물 경제난 직격탄

공실률 치솟고 ... 임대료는 바닥

13.8%가 비어 전국 평균보다 2배 높아

블화과 부동산시장 침체 등의 여파로 3·4분기 들어 광주지역 업무용건물의 공실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공실률이 크게 치솟은 반면, 임대료는 전국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건물에 대한 투자수익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10.5%)에 비해 3.3%포인트나 증가했다. 경기침체로 법인들의 휴·폐업 사례가 속출하면서 빈 사무실이 대책 없이 쌓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광주는 구도심인 동구의 구도심 일대를 중심으로 공실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동구의 경우 충장로 등 일부 우량 상권을 제외하고는 1층 상가마저 폐업이나 이전 등에 따른 공실률 증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임대료는 월 평균 5천1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1만5천100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전(4천600원)을 제외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8천7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8천100원) ▲부산(7천800원) ▲대구(6천800원) ▲울산(5천400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전국의 경우 3·4분기 업무용 건물의 공실률이 5.5%로 0.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광주는 건물의 임대료도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어 건물 소유주들이 공실률 급증과 임대료 하락의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9월 현재 광주 업무용건물의 m당



중소 제품 판로 확대 대전서 '구매상담회'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협회(회장 박춘근)는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오는 11월5일 대전컨벤션센터(대전시 유성구)에서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를 갖는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삼성전자·LG전자·현대차·포스코 등 40여개 대기업과 공기업 등이 대거 참여해 중부권(호남·충청권) 중소기업을 상대로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구매에 나설 예정이다. 상담회 참가자를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은 구매상담회 홈페이지(매치넷·www.matchnet.or.kr)에 접속해 대기업의 상담 품목을 검색하고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tleee@

곡성 멜론 서울 첫선 곡성군에서 수확된 이색 멜론 3종이 26일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에 첫선을 보였다. 속이 붉은 색을 띠는 마젠타, 겉이 노란 두나, 진녹색 이즈미르가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연합뉴스

"서남해안 기업도시 대규모 허브단지 조성 관련

광주·전남 향료산업 본격 육성해야"

나주 농업박람회 워크숍 김성현 박사 주장

내년부터 서남해안 관광레저 기업 도시에 대규모 허브단지가 조성되는 것과 관련, 광주·전남지역이 본격적으로 향료산업을 육성해 2천억원에 달하는 국내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향건강 Eco 연구센터' 설립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관련 중소기업 발굴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협회와 전남 농업기술원이 공동으로 오는 29일 나주시 대한민국농업박람회에서 주최하는 '전남 향료산업 육성전망' 워크숍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성현(광주·전남중기제조 제품진흥과) 박사는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

했다. 김 박사는 "향료산업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 가치가 매우 높고 고부가가치의 파생효과가 큰 첨단기술산업"이라며 "특히 향료산업을 육성할 경우 국내시장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수입대체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의 향료산업 기반은 매우 빈약해 해결해야 할 숙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지역내 향료식물자원은 145종에 달하지만, 오일 추출공과 제조 관련 사업과 실적은 바닥선에 그치고 있다. 특히 향료 관련 제조업체는 전문하고, 원천기술 확보 및 자본력이 취약해 유용 식물자원을 발굴하고 고부

가가치의 조항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체계적인 육성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게 김 박사의 주장이다. 김 박사는 "광주·전남중기협회, 전남도, 전남농업기술원, 관련대학 등이 향료산업 육성 커뮤니티를 구성해 관련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박사는 "광주·전남지역이 향료산업과 서남해안 관광·요양 등을 접목한 종합 허브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향건강 Eco 연구센터'를 설립해 향철 프로그램, 건강맛사지 프로그램, 향기교육 프로그램 등 체계적으로 갖추는 작업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광주 상의-中 남창시공상업聯 상호 경제교류 확대 협력기로

무역·투자 촉진 합의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이숙기·왼쪽에서 세번째)는 24일 3층 회의실에서 전남(右) 남창시공상업聯(회장 남창시공상업聯 회장과 남창시 무역교류단, 하영 중국수석영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강서성 남창시공상업연합회와 경제 교류 확대를 위한 우호결연을 체결했다. <사진> 광주상와 남창시공상업연합회는 양측의 공동 관심사항에 대해 협력하고,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회원기업간의 상호방문

및 두 도시간 무역·투자를 촉진시키는데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중국 강서성 남창시는 자동차·제철·섬유·군수산업을 중심으로 연간 3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6년 세계 10대 발전도시로 지정된 바 있다. 또 중국 3대 음악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광주출신 정윤성 선생의 활동지역이며, 광주시와 공동으로 '정윤성국제음악제'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해 광주시와 관광교류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日 금형업체 투자사 '한국야와타'

광주 평동공단서 본격 제품 양산

현대·기아차 안전벨트 납품

일본의 대표적인 초정밀 금형업체인 야와타 금속의 100% 투자회사인 한국 야와타가 광주에서 본격 제품양산 체제에 돌입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평동의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한국 야와타사가 지난 24일 공장 준공식을 갖고 초정밀 금형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한국 야와타가 광주에서 만든 자동차 안전벨트의 금속부품은 현대·기아차에 납품되며 북유럽 지역 수출을

자동차에도 장착될 예정이다. 이 회사의 본사인 야와타 금속은 지난 1951년 창업한 이래 일본 고도본사와 가도시마 등 4곳에 공장을 둔 초정밀 금형기업이다. 도요타, 혼다 자동차에도 야와타 금속의 주요 부품이 장착되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야와타사는 광주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모두 45억여원을 투자해 지난 2007년 한국 야와타를 설립한 뒤 평동산단에 공장부지 1만800㎡를 확보하는 등 양산체제를 구축해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제다, 美에 녹차 수출

광주시 동구 소재에 본사를 둔 한국제다가 미국에 녹차 등 차 제품을 수출했다. 26일 한국제다가 따르면 미국과 녹차와 황차, 가루차 등 차 제품과 티 샷 세트 등 15만 달러 어치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1일자로 선적을 마쳤다. 이번 수출은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지만 지난 2004년 미국에 수출한

확보한 이후로는 여섯번째다. 한국제다는 지금까지 미국에만 70만 달러 어치의 차 제품을 수출했고, 최근에는 스위스와 수출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국제다 서양원 대표(77)는 "2003년 미국 LA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자체 판매장인 '차생원'을 통해 한국의 차와 문화를 알린 것이 수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제다는 57년 동안을 작설자와 황차, 가루차 등 녹차 생산에 전념해오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SK텔레콤 서부마케팅본부 '선인장·식물 전시회'

내달 20일까지 광주사육

SK텔레콤 서부마케팅본부(본부장 안영규)는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광주사육 1층에서 다음달 20일까지 '선인장·다육식물 전시회'를 연다. <사진> 이 전시회는 고객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광주사육을 개방,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밤에 산소를 내뿜는 대표



적 공기정화 식물인 선인장과 다육식물 50여점이 전시돼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008년산 콩 수매

aT광주·전남지사

aT(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지사장 권운주)는 2008년산 콩에 대한 정부수매를 실시한다. 정부수매계획은 발품 3천t, 논콩 1만3천t으로 수매기간은 27일부터 12월 24일까지다. 수매가격은 지난 8월에 예시된 3천 17원/kg(대립종 1등)으로 논콩과 발품의 가격이 같으며, 지난해와도 동일하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주)옥션코리아, featuring property listings for various areas like Incheon, Gyeonggi, and Gwangju. Includes contact info: 062-222-8446.

Advertisement for JN 생활건강 (JN Living Health) water purifiers. Features a woman with a water purifier and lists benefits like '내몸속의 활성산소를 없애자!' and '수소 많은 물 먹으면 노화방지! 성인병 90% 활성 산소가 원인!'.